

## 도원3리 녹차단지 3천평 초토화

줄기 말라죽어 적갈색 · 올해 새잎 나오지 않아 ... 고성군 “6월말이면 잎 나올 것”

고성군이 지난 2005년 토성면 도원3리에 신활력사업으로 조성한 3천평의 녹차 재배단지가 지난 겨울 한파와 강풍 등으로 줄기가 적갈색으로 말라죽으면서 새 잎이 돋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현지 확인 결과 도원3리에 심어진 녹차 나무 2,400주 대부분이 잎이 사라지고, 남아 있는 가지는 말라죽어 적갈색을 띠고 있었다. 새로 잎을 낸 것은 10여주에 불과했다.

〈관련기사 6면〉

손으로 줄기를 잘라보니 ‘뚝’ 소리를 내며 힘없이 끊어졌으며, 수액이 전혀 없어 줄기가 이미 죽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바닥은 먼지가 일 정도로 바짝 말랐으나, 수분을 공급하는 스프링클러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시기에 조성한 현내면 산학리 316번지 일원의 2,700평 규모 녹차 재배단지는 도원3리와 달리 새로 나온 잎을 따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 도원3리 녹차 재배단지의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성군이 지난 2005년 신활력사업으로 조성한 도원3리 녹차 재배단지가 적갈색을 띠며 줄기가 죽어가고 있다(사진 왼쪽). 원내는 줄기 하단 부분을 손가락으로 잘라보니 ‘뚝’ 소리를 내며 끊어지는 모습. 사진 오른쪽은 현내면 산학리 녹차 재배단지에서 잎을 따는 모습.

고성군에 따르면 농업개방 등 농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특성화된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원3리와 현내면 산학리 일대에 금강산 고성녹차 재배단지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에 첫 수확을 했던 도원3리 녹차 재배단지는 올 들어 현재까지 수확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고소득 작목 육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원3리 김재문 이장은 “지난

겨울에 날이 추워서 잎만 동사가 된 것이고, 뿌리는 살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모내기를 끝내고 제조작업을 할 생각이며, 6월 중순이면 파랗게 새싹이 돋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이장은 또 “우리는 잎을 채취해 판매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라며 “녹차 자체는 경제적 이익이 없고, 볼거리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도원3리 녹차 재배단지가 관광객을 유인 할 수 있는 볼



거리가 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재배 규모가 3천평으로 작고, 재배단지 위치가 오지에 속해 접근성이 떨어지며, 주위에 이렇다 할 볼거리가 전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도원3리가 녹차 재배단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전문가들은 녹차 재배단지의 입지는 수분이 풍부하고, 수분을 빼앗는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산을 등지고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대의 녹차

재배단지인 보성의 경우나 고성에서 녹차가 잘 자라는 현내면 산학리의 경우 모두 산을 등지고 조성돼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있다. 반면 도원3리의 경우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곳이 없는 허허벌판에 조성돼 있다.

이와 관련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뿌리는 살아있는데 잎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이며, 6월말이면 다시 잎이 날 것으로 본다”며 “산학리는 별이 잘 들고 입지가 좋아 잘 자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

##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 기려

토성면 운봉리서 제5회 3·1 독립 애국지사 구국 충정 송모제 개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3·1 독립 애국지사 구국 충정 송모제가 세워져 있는 토성면 운봉리에서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우국충정의 참뜻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운봉리 애국지사 송모비 관리위원회(위원장 황기중)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송모공원 광장에서 지역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3·1 독립 애국지사 구국 충정 송모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애국다짐 태극기 달기, 소원희망 쪽지달기, 22사단 의장시범, 헌화 및 분향, 추념사, 독립만세 재현, 나라사랑 글짓기 등의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특히 송모제 개최와 연계해 문화창작집단인 ‘행동모두’(대표자 최경민)에서는 화진포 금구도가 광개토왕의 능이라는 주제를 극으로 재구성한 고성문화 바로알기 창작극 ‘대왕의 약속’을 공연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 10일 토성면 운봉리 송모공원 광장에서 제5회 3·1 독립 애국지사 구국 충정 송모제가 열렸다.

운봉리 애국지사 송모비는 지난 2007년 6월 운봉리마을 자체자금과 주민 성금으로 운봉리 출신 대한독립애국단 강원도단 3인을 기리기 위해 건립했다. 그후 함께 활동한 고성군 출신

독립운동가를 모두 기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에 따라, 운봉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부지를 내놓고 고성군이 1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5인을 모실 수 있도록 확장했다. 박승근 기자

**영동OA사무기**

디지털복사기    소모품판매  
 잉크젯 · 레이저 프린터    맥스  
 복합기렌탈    LCD프로젝터

**681-7607, 010-3179-7607**